

금호타이어 23-24일 경고파업 돌입

정리해고 철회 위해 25-26일 2차파업 ... 임금·구조조정 노사갈등 극단

금호타이어가 8월 23-24일 양일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8월22일 쟁대위 투쟁지침 9호를 통해 “23일과 24일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25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26일에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2차 경고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금호타이어가 17일 노동청에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23일 정리해고자 명단을 조합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쟁대위 투쟁지침 9호에서 27일부터 9월2일까지 정상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경고파업이 앞으로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임금 7.48% 인상과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임금동결, 정기승호 보류 등 6개 항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의 17.9%인 706명을 정리해고 한다는 회사의 방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4>